

한류를 통해 본 소중화(小中華)에서 대중화(大中華)로의 노정

김진영*

■ 국문요약

2020년부터 지구촌을 휩쓴 팬데믹은 대중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위축을 촉발했으나 양질의 콘텐츠로 무장한 한류의 영향력은 다양한 미디어플랫폼을 바탕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근현대시기 식민문화, 전쟁, 남북분단, 군사독재 등 극적인 역사를 거쳐오면서 축적한 문화적 다양성은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로 변해 전세계에 우리문화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증산은 외세의 침략과 탐관오리의 폭정에 신음하던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했던 조선말기, 우리나라가 대중화, 즉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예견하였다. 유학을 신봉했던 당시 학자들이 중국이라는 타자의 인식체계에 기대어 발현한 소중화론과는 달리 그의 사상은 기존 조선 사대부로서 학습된 사유체계를 벗어던지고 인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전경』에는 그가 역사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진단하여 소중화가 대중화가 될 것을 언급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어 꽃을 피우는 인동초처럼 만방을 아우르는 위대한 문화로써, 곧 대중화(大中華)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보편성과 한국문화의 특수성,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전통을 수용하는 혁신성이 공존하는 한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E-mail: staci21@naver.com

는 증산이 규정한 ‘대중화’로의 이행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표이다. 우리 대중문화콘텐츠의 특징인 역동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에서는 대중화의 시작을 한류의 태동과 확산을 통해 설명하고 한류를 견인하는 젊은 세대의 역할을 살펴본다.

주제어: 강증산, 소중화, 대중화, 한류, 문화콘텐츠

- I. 머리말
- II. 중산과 조선의 소중화론
- III. 대중문화의 시대를 견인하는 젊은 세대
- IV. 한류의 배경
- V. 한류의 확산과정 : 한류 1.0부터 4.0까지
- VI. 맺음말

I. 머리말

2020년부터 인류는 코비드(COVID)19로 인해 고통과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친구와의 수다, 카페에서의 차 한잔, 일터의 노곤함을 달래준 동료와의 회식자리처럼 일상적으로 혹은 정례적으로 해왔던 수많은 친숙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삶을 언제쯤이나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전광석화처럼 만들어진 백신과 집단면역에 실날 같은 희망을 품고 있으나 지구촌이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아직 요원한 듯하다. 그러나 이처럼 우울한 소식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콘텐츠¹⁾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전세계로 영향력을 넓혀나가면서 먹구름 사이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1) 문화와 '내용물을 의미하는 콘텐츠'의 합성어로, 문화적 요소가 다양한 미디어에 구현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문화콘텐츠(cultural contents)는 영미권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매우 한국적인 용어이다. 1990년대 후반 한류붐이 일면서 문화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대중문화의 생산물, 즉 방송, 영화, 음반, 출판, 연극, 게임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문화콘텐츠'가 널리 쓰이게 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추상적이며 관념적 의미는 '문화'로, 도시의 출현과 연동하는 물질적, 기술적 소산은 '문명'으로 표기한다. 미디어에 구현되는 구체적 문화적 산물의 경우, '문화콘텐츠'로, 세계문화사적 흐름에서 20세기후반부터의 한국문화 전반은 '한류'로 혼용하여 기술한다.

특히,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사랑은 단지 일부 K-pop 그룹이나 배우의 팬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경제지표로도 증명된다. 2020년 관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국가들이 봉쇄되고 수출입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음반이나 영상물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무료함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우리 문화가 우뚝 선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새 음원이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최장기간 드라마 부문 1위에 올랐다가 블랙핑크의 로제가 여성가수로서 최단기간에 뮤직비디오 1억뷰를 달성했다는 소식은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경이로운 뉴스가 되지 못한다.³⁾ 불과 20여 년 전 문화종속을 우려하여 일본문화의 개방⁴⁾을 맹렬히 반대하고 우리 영화를 수준 낮은 동네영화, 곧 ‘방화(邦畵)’⁵⁾라 스스로 깎아내리며 스크린쿼터⁶⁾의 보호막 속에 안주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회피하던 나라가 세계인의 극찬을 받는 문화콘텐츠의 산실이 된 것이다.

우리 문화의 저력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어 마침내 꽃을 피우는 인

2) 박대의, 「K팝 음반수출액, 2억달러 고지 났었다」, 《매일경제》 2021. 12. 01.

3) 코로나 이후 디지털기술과 혁신을 등에 업은 한류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물과 백서, 뉴스 기사도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기 조사된 한류의 정량 평가적 측면보다는 소중화-대중화를 위시한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4)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시기 약 6년동안 정부는 총 4차례 걸쳐 일본문화를 개방한다. 지금은 안방에서 전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문화의 수용을 국민정서를 이유로 암묵적으로 금기시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불법복제와 같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일본문화를 접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미디어의 한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대한 일본문화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5) 70~80년대 ‘자국에서 제작한 영화’라는 의미로 쓰였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만 통하는 영화라는 것을 은연중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작 영화는 ‘한국영화’ 또는 ‘국산영화’로 통칭하고 있다.

6)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1년의 1/5 이상(365일 상영시 73일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1998년 한미투자협정을 추진하면서 미국측이 스크린 쿼터제 폐지를 요구하자 영화인들은 대규모 자본으로 제작되는 할리우드영화에 밀려 국산영화가 도태될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영화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한국영화 점유율은 2011년 이후로 50%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충분히 외국영화를 압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초와 닮아있다. 정치적 혼란과 민중의 비참한 삶이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던 조선말기, 놀랍게도 강증산은 이미 조선, 즉 소중화(小中華)가 겨우내 움크린 채 봄을 기다리는 인동초처럼 언젠가는 세계만방을 아우르는 위대한 문화, 곧 대중화(大中華)로 부상할 것을 천명하였다.⁷⁾ 그가 통찰한 ‘드높은 문화의 맹아’는 120여 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이 땅 위에서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문화콘텐츠는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을까? 오늘 이 글에서는 소중화에서 대중화로의 전환 과정을 한류의 태동과 확산을 통해 살펴보자.

II. 증산과 조선의 소중화론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였던 조선초기부터 사대부들이 인식하는 세계관에서 명나라는 주자의 정통성을 계승한 ‘위대한’ 중화문명의 계승국이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 사이에 숭명 의식이 얼마나 팽배했는지는 태종이 즉위후 사회 전반의 제도를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려고 했었다는 기록에서 쉽게 드러난다.⁸⁾ 조선은 지리적으로 중국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중화문명의 범주 안으로 스스로를 치환하였으며, 따라서 ‘작은 중국’, 즉 소중화로 규정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17세기 만주족이 명나라를 멸하고 청나라를 세우자 조선의 이러한 교조적 소중화사상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사실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대주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청나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사

7) 『전경』, 공사 3장 18절, “순망즉치한이라 하듯이 중국이 편안함으로써 우리는 부흥하리라… 보은신은 우리에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소중화가 곧 대중화가 되리라.”

8) 김상조, 「조선 사대부의 자아를 보는 눈」, 『영주어문』 12 (2006), p.98.

상적으로는 조선이 그토록 숭상하던 중화문명이 청나라 ‘오랑캐’에 의해 사라져가고 이단 사설로 폄하했던 ‘양명학’이 성행하게 되자 오직 조선만이 주자의 도(道)로써 중화문명을 계승한다는 의미의 소중화론이 대두하였다. 명청시대 조선 사대부들은 중화문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조선의 ‘소중화론’은 주체적 자아를 결여한 채 중국이라는 타자의 인식체계에 기대어 발현한 사상이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중국, 더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 초국적으로 세계를 휩쓰는 한류 현상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다시 증산의 ‘소중화’사상으로 돌아가서, 그의 시대를 꿰뚫은 통찰은 그를 따르던 극히 일부의 제자들이나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의한 직접적 경험을 통해 명성을 이어갔을뿐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 조선 전반에 ‘사상적 이단아’들과 일반 백성들은 주류사회의 인식체계에까지 균열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증산은 어떻게 조선 사대부들의 견고한 사상적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조선의 유학자들이 인류사의 중심을 ‘중화’에 두고 조선을 주변부에 위치시킴으로써 학문적(문화적)으로 위계질서를 절대 신봉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증산은 유학자로서 학습된 사유체계를 벗어던지고 인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역사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진단한다.

그가 『전경』에서 무심한 듯 던지는 시 한 구절이나 특정 인물의 행적, 역사적 사건 등은 왕조의 부침으로 야기되는 격동의 시대, 즉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 예를 들면, 행록 1장 1절부터 수양제와 강이식의 일화가 소개된다. 동학군의 실패를 예견하면서 언급한 흥노의 선우(單于)의 이야기,⁹⁾ 임진왜란의 참화에서 나라를 구한 율곡과 이항복의 예지, 임기응변과 고군분투,¹⁰⁾ 논공행상에서 어진 왕이 갖추어야 할 공평과 공정의 도의에 관한 내용¹¹⁾은 모두 전

9) 『전경』, 행록 1장 23절.

10) 같은 책, 행록 1장 32절.

11) 같은 책, 행록 2장 18절.

쟁과 같은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도자의 덕목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은나라의 창업공신 이윤,¹²⁾ 문왕을 도와 주나라를 세운 일등 공신 강태공,¹³⁾ 삼국지를 대표하는 명장인 관운장,¹⁴⁾ 유비, 제갈량,¹⁵⁾ 한나라의 창업주 유방의 든든한 책사 소하¹⁶⁾와 장량¹⁷⁾ 등 『전경』에 언급되어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부패한 왕조를 뒤엎고 구세제민에 나선 혁명가들이다. 이들 인물이나 사건의 배경을 보면, 증산은 역사적 맥락 속 어떤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왕조의 부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변화를 포착하면서 동시에 그 변화를 이끌었던 인물을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의적으로, 증산은 왕조의 신구교체라는 정치적 혼란기의 문명 이동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명의 이동을 중국내 권력의 헤게모니 이동이라는 지역적인 관점을 넘어 ‘조선’으로 소환한다. 예를 들면, 광서제에 응기하여 있던 황극신을 조선으로 옮겨온다거나 한중일 3국의 명부를 각각 전봉준, 김일부, 최수운으로 세운 것과 원(元)의 단초를 제공한 요임금의 아들 단주의 해원을 이 땅의 회문산 오선위기혈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려놓은 것을 밝힌 것이다.¹⁸⁾

증산은 또한 압도적인 과학기술, 체계화된 정부조직, 군사력 등을 앞세운 서양문명의 세찬 기세 앞에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를 면치 못했던 19세기말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변방중의 변방이었던 조선에서 펼쳐질 동양문명의 부흥을 예견하였다. 『전경』에는 진묵대사가 봉곡에 의해 참혹하게 소사한 후 원을 품고 도통신을 이끌어 서양으로 넘어가 서양문명을 일으켰으나 증산의 해원공사에 의해 고국(조선)으로 돌아와 선경(仙境) 건설에 쓰이는 내용이 나온다.¹⁹⁾ 『전경』에서 기술한

12) 같은 책, 공사 3장 37절.

13) 같은 책, 예시 22절.

14) 같은 책, 권지 2장 21절.

15) 같은 책, 교법 3장 28절.

16) 같은 책, 교법 2장 50절.

17) 같은 책, 공사 1장 36절.

18) 각각 『전경』 공사 3장 22절, 공사 1장 7절, 공사 2장 3절 참조.

내용에 따르면, 서양 문예부흥기(르네상스, 14~16세기)의 도래는 진묵 외에 마테오 리치와도 관련이 있다. 마테오 리치는 동양에 지상천국을 세우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원을 품고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연 것으로 묘사된다.²⁰⁾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증산은 인간중심의 사고, 혁신성, 과학기술, 지식과 예술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르네상스의 원류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 꽃피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명은 중국에서 조선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서양으로, 다시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²¹⁾하게 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명은 지속적으로 서양과 동양사이, 또는 패권국들간 위계질서 속에 재편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증산의 해답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상의 만개로 인한 반목쟁투는 해원으로써 신명을 조화하여 선경이 세워지게 되며 각 민족간 드러난 여러 갈래의 문화에서 정수를 뽑아 언어를 위시하여 동서양의 문명이 통일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말살되는 획일화가 아니라 반목과 갈등, 상극이 해소되어 지선(至善)의 문명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심국가로서 후천문명의 선도국이다. 그가 말한 ‘대화화’는 단순히 중화문명이나 동, 서양문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문명의 결정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보편성과 한국문화의 특수성,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전통을 수용하는 혁신

19) 같은 책, 공사 3장 15절, 권지 2장 27절.

20) 같은 책, 교운 1장 9절.

21) 『전경』에서는 신명들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가 문명을 개화시키고 다시 동양으로 옮겨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묘사가 여러 구절에 나온다.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 오게…」 「조선 신명을 서양에 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 「그믐날 밤에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들으시고… 이것은 서양에서 신명이 넘어옴이니라…」 (각각 예시 29절과 25절, 행록 3장 61절 발췌).

성이 공존하는 한류는 증산이 규정한 ‘대중화’로의 이행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표라 하겠다.

Ⅲ. 대중문화의 시대를 견인하는 젊은 세대

테일러(E.B. Taylor)가 주장하듯이 문화는 인류가 축적한 총체적 생활 양식²²⁾이므로 그 스펙트럼은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등의 추상적, 관념적인 무형의 유산을 포함하여 문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문화콘텐츠, 예를 들어, 영화, 음악, 방송프로그램, 출판물, 게임, 건축물,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대하다. 문화의 수많은 갈래중 단연 가장 큰 파급력을 자랑하는 것이 대중문화이다. 윌리엄스(R. Williams)는 대중문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라는 것이다. 대중문화를 주로 ‘팝컬처(pop culture)’라 지칭하는데 팝이라는 용어에는 단지 다수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거나 질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라는 의미가 포함된다.²³⁾ 과거 ‘고급문화(high culture)’²⁴⁾가 소수에 의한 헤게모니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대중문화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문화의 형태라는

22) E.B. Ta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New York: Gordon Press, 1974).

23)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93.

24) 문화에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라는 엘리트주의적 이분법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고전문화를 고급문화로,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는 것은 대중문화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거 셰익스피어의 연극, 오페라, 발레 공연 등이 대중문화로 인식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급문화의 대립항을 단순히 대중문화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단지 수용자의 미적 판단, 태도나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의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자신들의 노력을 자양분으로 삼아 탄생한 자발적인 팬덤인 ‘아미(Army)’의 열정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반면 국가정책으로 ‘쿨재팬(Cool Japan)’²⁵⁾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중문화의 성패는 자발적인 수용자(audience)²⁶⁾의 열정과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는 대중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으로 한류의 확산에 가장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한다. 80년대 후반 냉전 종식으로 90년대 초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순차적으로 공산국가들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물적, 인적교류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역내 시장경제의 도래에 발맞추어 정치적 이념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수입가도 저렴한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는 적절한 문화상품이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 침탈에 피해국이자 극심한 이념대립, 군부 독재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근현대 역사의 질곡을 건너온 나라로서 초기 한류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한류 수용국중 하나인 중국은 수용자의 59.4%가 30세이하인 반면 일본은 50에서 59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²⁷⁾

상대적 기준이라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시아 젊은이들은 자국 문화콘텐츠에 비해 더 현대적이며, 세련되면서 동시에 아시아적인 전통미를 갖춘 한국 드라마나 음악의 문화적 혼종성에 열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에서 29세 사이 드라마 시청자의 80%가 드라마 내용에 대해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과 이야기한다고 대답함으로써 문화콘텐츠가 친목과 사교, 가족간의 화합에도 훌륭한 수단인 것을 알 수 있다.

25) 한류가 일본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일본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쿨재팬기구를 설립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수출 증대, 국가 브랜드 파워의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관련 사업의 수익성이 낮고 성과가 미미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실패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26) 미디어분야에서 ‘소비자’는 주로 ‘수용자(audience),’ 시청자(viewer), 또는 독자(reader)로 표현되는데, 이 글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수용자’로 통일한다.

27) Jonghoe Yang, “The Korean Wave (hallyu) in East Asia: A Comparison of Chinese, Japanese, and Taiwanese Audiences Who Watch Korean TV Dramas,” *Development and Society* 41:1 (2012), p.127.

문화콘텐츠의 확산과정에서 젊은층(18세에서 23세사이)은 TV로 대표되는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보다는 SNS, OTT 및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더 선호한다. 이 조사결과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젊은층에 익숙한 뉴미디어가 미디어풍경(mediascape)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²⁸⁾

『전경』에는 ‘간방(良方)’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²⁹⁾ 역리상으로, 우리나라는 만물이 시종(始終)하는 간방에 위치하여 후천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간’은 오행으로는 성장을 의미하는 목(木)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활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사람으로 치면 소남(小南), 즉 청년을 뜻한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아름답고 재능 넘치는 청년들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지금의 한류 현상은 역학적으로, 또한 증산의 소중화 대중화론에 비추어서도 이미 예정된 우주의 섭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한류의 배경

15세기 이후 최근까지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인식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1935~2003)가 지적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인다. 다시 말해, 각각의 문화현상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서구는 마치 문명과 현대화(civilization and modernization)의 저작권자인 반면 아시아는 서구가 만든 기준내에서 그 문명을 빌리거나(borrow) 심지어 표절(plagiarism)하는 하위주체

28) Charo Lacalle, “Young People and Television Fiction, Reception Analysis,” *Communications* 40:2 (2015), p.244.

29) 『전경』, 교운 1장 52절, 권지 1장 1절, 예시 50절.

로 여겼다.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인식은 문화적 교류가 왕성했던 대항해시대(1400~1600 CE)에도 그대로 이어져 서구는 ‘인식의 주체’로, 아시아는 ‘서구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³⁰⁾ 이처럼 화석화된 문화적 편견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서구 문화의 확산을 심화하였고,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미국문화로 대표되는 서구문화가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콘텐츠는 어떻게 공고해 보이는 서구문화의 아성을 뚫고 지금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한류의 발신지인 한국을 비롯해 가장 먼저 한류를 수용하고 확산시킨 동아시아국가들은 압축성장을 통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류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중국의 경우, 80년대 개방이후 미국식 자본주의와 함께 자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중화주의가 그대로 문화코드로서 자리한다. 일본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국가로 19세기 메이지유신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모델로 하는 근대국가로 전환하여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실현하였으나 역설적이게도 어떤 점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편익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장인문화의 전통을 고집스러운 정도로 고수하는 나라이다.

한국은 극적인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최단기간 산업화(현대화), 민주화를 일구어낸 성과가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는 여러 종교가 비교적 조화를 이루며 전통신앙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여전히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보수적 도덕규범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50년도 채 되지 않는 압축적인 기간에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또한 식민화로 인한 일본문화와 해방후의 미국, 유럽 등의 서구문화가 도입되면서 발현한 문화적 혼종성은 고유의 전통문화와 융합하여 새롭고 독특한 한류로 탄생하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독일판은

30) Bok-rae Kim, “Past, Present and Future of Hallyu (Korean Wave),”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5:5 (2015), pp.154-160.

한류의 성공 요인을 정치와 역사문제처럼 무거운 주제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대중문화에 정교하게 융합한 데에서 찾은 바 있다.³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서구와 달리 ‘전통문화와 미국문화를 기치로 한 현대문화’ 사이의 간극을 경험한 아시아국가들의 문화적 공백을 훌륭하게 채워준 것이 바로 한류였다. 다시 말해, 한류는 아시아적 전통과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서구문화의 보편성, 세련됨, 역동성 등 다양한 특징에 준거하고 있다.

V. 한류의 확산과정 : 한류 1.0부터 4.0까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대중문화는 전술한 것처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인접 국가를 시작으로 서서히 인기를 얻어갔다. <표 1>에서 보듯이, 한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태동기인 한류 1.0에서 최근의 4.0까지 나누어지는데, 각 시기별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변곡점이 기준이라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의 한류 1.0 시기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등 시리즈물이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촉발한 한류의 도입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류의 인기는 주로 동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한류 2.0은 확산기로서, 빅뱅, 소녀시대, 카라 등 주로 대형기획사 출신 아이돌그룹들이 이끌어간 K-Pop 중심의 한류였다. 당시 한류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랍,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에 진입에 성공하였다.

31) Ashley Rodriguez, “10 reasons ‘Squid Game’ became a global phenomenon, according to a Netflix marketing exec,” *Business Insider*, 2021. 10. 19.

〈표 1〉 한류의 전개 과정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한류 4.0
	1997년~2000년대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2020년	2020년대~
콘텐츠	드라마, 팝	드라마, 팝, 영화, 관광, 글로벌콘텐츠 ³²⁾ 의 활성화	기존콘텐츠 + 웹툰, 뮤지컬, 게임, 출판, 패션, 음식, 뷰티, 전통문화 등으로 확장	융합한류(경제, 의료, 국방, 문화 등 다양한 섹터와의 연계) 상호교류
플랫폼	방송, 공연, 음반	방송, 공연, 음반, 영화	방송, 영화, 공연, 유튜브로 확장	+OTT, 메타버스 등 디지털플랫폼의 확장
대상지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랍, 중앙아시아, 중남미	+ 유럽, 북미	

출처: 한류백서 참고, 필자 재구성

한류 1.0과 2.0시대에 각각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발판을 넓혔다면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한류 3.0은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시기로, 한류의 정착기라 하겠다. 한류의 매체는 드라마, K-pop, 게임, 뮤지컬, 웹툰 등 훨씬 다양해졌다. 기존의 대중문화에서 전통문화, 예술을 포괄하는 범주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우리의 문화 전반에 흥미를 지닌 해외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이 시기는 일부 매니아층 또는 청소년이 주류를 차지하였던 수요자층을 다변화하여 모든 계층의 세계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분기점이었다.

그리고 2020년대 한류 4.0시대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융합한류”로 가야 한다. 해방이후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문화융성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간 문화콘텐츠 수출에 역점을 두는 다소 일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상호문화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동북공정과 같은

32) 글로벌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세방화(世方化)’라고 하며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전략을 가리킨다.

지속적인 보복이나 왜곡, 또한 일본과 얽여있는 정치적, 역사적 은연을 해소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수용자들이 보여준 한류콘텐츠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진정한 대중화로의 이행에는 국가와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역량 등 물질적, 정신적 역량의 총합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류가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에 머물고 있었다면, 다가올 한류 5.0의 시대에서는 장르의 확장, 타업종 융합, 정신적 가치의 제고 등으로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한류 트렌드를 연관산업과 관련 분야 등으로 파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마치 삼투압현상처럼 쇠신(새로운 문화요소)의 발신지로부터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차츰 확산된다. 음악, 방송, 영화 분야 등의 문화콘텐츠산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측면, 즉 종교, 학문, 사상,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문화원형이 수용될 때, 증산이 주장한 ‘대중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VI. 맺음말

포스트모던시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생태계에서 표현되는 방식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거나 변형되는,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축제일(movable feast)’과 다르지 않다. 또한 세계화의 과정은 우리의 정체성에 다원적인 영향을 주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더 명징하게, 더 정치적으로 바르게, 또한 더 다원적이며 다양하게 한다.³³⁾ 이는 곧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유연한 사유를 가능케하여 인류

33) Fatimah Awan, “Young People, Identity and the Media: A Study of Conceptions of Self-Identity among Youth in Southern England” (Ph.D. Dissertation, Bournemouth University, 2007), p.10.

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 더 없이 수용적인 태도에서 태어난 문화적 혼종성 등이 어우러진 한류는 전세계를 아우르는 대중화 탄생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놀라운 재기발랄함과 재능으로 세계를 사로잡는 청년들에게서도, 옛날 옛적 고조선의 무천, 부여의 영고와 같은 제천의식에서 신명나게 악가무를 연행했던 이름 없는 예인들에게서도, 전형적인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유희의 인간)의 원류를 어렵곳이 찾을 수 있다.

대중문화는 팬데믹이라는 재난적인 상황에서 치유와 더불어 주체적 자아를 찾아가는 역할을 자임한다.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현실도피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있으며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정치적 옳음(political correctness)’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어 대중의 의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OTT인 애플 TV의 《파친코》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재일동포의 비극적 삶을 한일간의 갈등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용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관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탄압이나 일부 국가의 혐한현상과 같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은 있었으나 대중문화에서 촉발한 한류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지구적인 한류의 확산 현상은 인류가 문화의 정수인 대순사상(Daesoon Thought)이 널리 펼쳐질 때 진정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상조, 「조선 사대부의 자아를 보는 눈」, 『영주어문』 12, 2006.
- 대순진리회 교무부, 『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박대의, 「K팝 음반수출액, 2억달러 고지 났았다」, 『매일경제』 2021. 12. 01.
- Ashley Rodriguez, “10 reasons ‘Squid Game’ became a global phenomenon, according to a Netflix marketing exec,” *Business Insider*, 2021. 10. 19.
- Bok-rae Kim, “Past, Present and Future of Hallyu (Korean Wave),”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5(5), 2015.
- Charo Lacalle, “Young People and Television Fiction, Reception Analysis,” *Communications* 40(2), 2015.
- E.B. Ta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New York: Gordon Press, 1974.
- Fatimah Awan, “Young People, Identity and the Media: A Study of Conceptions of Self-Identity among Youth in Southern England,” Ph.D. Dissertation, Bournemouth University, 2007.
- Jonghoe Yang, “The Korean Wave (hallyu) in East Asia: A Comparison of Chinese, Japanese, and Taiwanese Audiences Who Watch Korean TV Dramas,” *Development and Society* 41(1), 2012.
-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Abstract**

**The Itinerary towards the Great Core Culture
(大中華) from the Small Core Culture through Hallyu**

Kim Jin-young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 Cont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vid pandemic has resulted in the decline of pop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in general since 2020, however, high-quality hallyu (Korean Wave, namely, Korean popular culture) equipped with ingenuity has had a great deal of impact throughout the world based on a variety of media platforms. The cultural diversity has been accumulated over the dramatic history through Korean traditional culture, colonial period,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r dur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which transformed itself into the surge of Korean Wave, hallyu, demonstrating our latent energy to the fullest.

Jeungsan predicted that Joseon (Korea) would be the Great Core Culture, namely, the hub of the world, in the end of Joseon, a tenuous and poor country that had suffered under tyranny of corrupt officials and foreign powers. The Confucian scholars of the past strongly believed in the Small China theory by having leaned on the others' cognitive system, Sino-centrism, whereas Jeungsan's thought freely crossed the borderline of awareness by casting off

the shackles of the existed theories of Confucianism. Many verses in *The Canonical Scripture* describe how he mentioned that the Small Core Culture would become the Great Core Culture by transcendently examining the historical context. That is, Korea is similar to the honeysuckle, the enduring-harsh-winter plant (忍冬草). This country has been predicted to embrace the world emerging as the Great Core Cultur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pprehend the beginning of the Great Core Culture by examining the origin of hallyu and the role of young generation that drives the diffusion of hallyu. The Korean pop-culture is characterized by its dynamism and uniqueness. Based on this characteristic, hallyu has been enthusiastically accepted by young generations all over the world. Hallyu, which embraces cultural convention, Korean ingenuity, and diverse traditions of other countries, is the most obvious indicator by which the Great Core Culture has been achieved.

Keywords: Kang Jeungsan, Small Core Culture, Great Core Culture, hallyu, cultural contents